

무안군 답답한 예산 운용...군민은 한숨만

지역개발·관광 활성화 등 역점사업 비효율 투입
조기집행도 저조...지난해 이월액 657억원 달해

무안군이 역점사업인 관광사업과 지역 개발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조기 집행(재정균형) 성격도 저조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26일 무안군에 따르면 2013년 명시 이월액은 726억7140여만원(431건)이고, 2014년 명시 이월액은 657억9980여만원(185건)에 달한다.

지난해 명시이월 사업비가 가장 많은 실과는 건설교통과(37건 55억여 원), 해양수산과(19건 51억여 원), 안전총괄과(22건 38억여원) 순이었다.

지역개발과는 지난해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8개 지구) 관련 사업비 26억여 원 가운데 설계비 9억여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7억여 원을 이월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남악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시 암반층이 나오자 부지를 변경하는 바람에 예산 27억원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남악자전거도로(사업비 15억원)는 아직도 설계중이다. 또 옹호지구 하수처리시설(사업비 10억원)은 사업지연으로 설계발주도 못하고 있다. 군은 예산 미집행에 대해 사업추진시기 조정과 사전행정 절차 이행, 사업부지 변경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 명시이월(明示移越)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군의 예산 조기집행도 저조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이 지난해 재정균형(조기)집행 하지 못한 예산은 209억원. 2013~2014년 재정균형 집행 성적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2013년19위, 지난해 15위 등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함에 따라 각종 군 역점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도 받지 못했다. 군민들은 주요 농산물인 양파·마늘 등 가격

이 2년째 폭락한데다 해양관광사업 지연으로 주말에도 관광객 발길이 한산해 음식점 문을 닫아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입 단체장 시절이던 2010~2012년 3년간은 조기집행 목표액을 초과달성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단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총 3억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 관리계획 변경과 같은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른 시일내에 이를 마무리해 회계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재정균형 집행 2288억원 가운데 55%인 1258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장성 고려시멘트 지역사회 봉사 ‘앞장’

축령산서 쓰레기 수거 활동
매년 효도관광·장학금 지원

고려시멘트 (대표이사 이국노)는 최근 장성 축령산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펼쳤다.

〈사진〉 임직원 50여명은 서삼면 추암리 괴정 마을에서 출발해 모암 삼림욕장을 돌아오는 등반로 6km 구간에서 버려져 있는 생수병과 음료수 캔, 휴지 등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국노 사장은 “올미년 새해를 새로

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전국 관광객에게 장성군이 더욱더 힐링과 치유의 숲 고장으로 알려지도록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나눔과 봉사 실천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시멘트는 지난 2012년 강동그룹이 인수한 이후 매년 주민 효도관광은 물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불우이웃 돕기, 사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향토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신안군 ‘팽생이 모자반’ 수거 총력...군 병력까지 투입

“자연재해 반영 정부 건의”

신안군이 전북, 다시마, 김 양식장으로 밀려와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팽생이 모자반’〈광주일보 1월 19일 13면〉 수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해 12월말 중국 발해만 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반 수거를 위해 2억5500만원을 투입, 현재까지 선박 608척, 인력 2792명, 중장비 7대 등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1342t을 거둬들였다.

군은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어촌어항협회, 군부대 협조를 받아 해안으로 유입된 모자반을 수거하고 있다. 고길호 군수는 24일 모자반 피해가 큰 흑산면 현장을 방

문해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시마 양식시설에 유입된 모자반은 파도에 의해 1차 염체가 탈락돼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북 막이 공급원인 다시마 생산이 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 양식 역시 김을 채취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염체가 탈락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관계자는 “막대한 피해를 준 모자반 발생, 원인, 경로 등을 조사한 뒤 예방대책을 세울 계획”이라며 “이번 모자반 유입으로 발생한 수산시설물 피해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자연재해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신안군 흑산면 주민과 해군 장병들이 지난 24일 흑산도 곤촌리 해변에서 대량 유입돼 김·다시마 양식시설에 피해를 주고 있는 ‘팽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있다. 신안군은 현재 인력 2800여명과 선박 600척을 동원해 모자반을 수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새 얼굴

“실현가능 정책으로 농어촌 발전 기여”

윤 영 철 농어촌공사 합평지사장

“현장중심, 고객중심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한국농어촌공사 윤영철(54) 합평지사장은 “내부적으로는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밝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고, 외부적으로는 농·어촌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역 농업인이 필요로 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남 출신인 윤지사장은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학·석사)를 졸업했다.

지난 1989년 공사에 입사해 영산강사업단 구조개선부장, 본사 대단위부장 등을 역임했다.

/합평=황윤학기자 hwang@



“무질서엔 단호, 사회적 약자엔 배려”

박 영 덕 무안경찰서장

“주민안전과 행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무안경찰이 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무안경찰서 박영덕(58)서장은 “무질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는 관심과 배려로 주민이 다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서장은 “아동학대와 여성폭력, 노인 범죄예방은 물론 남악신도시 교통질서 예방과 근절에 앞

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무안 출신인 박서장은 목포여고를 졸업했다. 지난 1979년 순경으로 첫발을 내디딘 후 나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광주경찰청 보안계장, 장성경찰서장, 광주경찰청 112 지령실장 등을 지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보성경찰 아동학대 근절 합동 간담회

지역 어린이집 원장 초청

보성경찰서(서장 박상우)는 최근 ‘아동학대 근절’을 주제로 어린이집 원장, 보성군청 담당자들과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참석자 스스로 아동학대 사건이 지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결의했다.

박상우 서장은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금남로 가구점 대지 416㎡(126)공시가 12억7천 원형 8억 매도 11억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97)건평 1235㎡(363) 투자양호 14억
- ◆충청남도 대안군 해수욕장 편선 최적합지 1984㎡(600) 감정 7억7400 원형 5억8천 감정가로 매도나 교환일함
- ◆롯데백화점 인근 시설좋은 모텔 대지 390㎡(118) 건평 1375㎡(416) 객실 33 온형 10억8천 교환가능 14억7천
- ◆금제 광천동터미널 인근 6층건물 대지 661㎡(200) 건평 3055㎡(924) 4층 133평은 공실 대출 15억 전세 9억 월500 회사사옥 등 적합 25억

투자 매도 교환

- ◆조선대 앞 대로변 동명동 5층 건물 대지 318㎡(96) 건평 736㎡(228) 상가와 안집, 원룸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천 수익 8억7천
- ◆합평군 해보면 문정사거리 코너 준주거 334㎡ 대출 5천 매도 1억6천
- ◆상가와 공동주택 적합 산수시장 준주거 284㎡(87) 3억7천
- ◆상가와 공동주택 적합 관산구 신촌동 284㎡(86) 2억5천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7934㎡(2400) 남양유업인근도로 좋은 공장, 창고 등 다용도 11억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임
- ◆화정동 5분거리 대지 645㎡(195) 빌딩용 단독주택 등 적합 3억천
- ◆누문동 상업용지 486㎡(147)와 주택 공시지가 2억3500 매도 3억천
- ◆전원주택, 빌딩 부지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 1645㎡(498) 분할 매매도 가능 평당 54만원
- ◆장성군 추암면 30년 판백나무 2만여그루 78965㎡(23887) 투자나 개발에 적합 매도 9억
- ◆원룸 건물 쌍촌동 5.18공원 건너 원룸촌 대지 206㎡(60) 건평 453㎡(137) 안집, 가게, 원룸 15개 4억9천

이전해 갈 물건

- ◆관산구 하산동 그린벨트 대지 1009㎡(305) 건축물대장 있음 대출9천
- ◆무안군 왕운면 자연녹지 전 2238㎡(667) 대지 555㎡(168) 대출8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사관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 원 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망 양호, 매4억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동 교통편리, 매7억
-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 75㎡, 점포 26㎡, 매2억4천만원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7,930㎡ 신축주택 4차선 국도 및 2차선 도로변, 매12억
- ▶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전(지목상 임야) 20,495㎡ 영농조건 양호, 임대수익 양호, 투자유망, 매3억 7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 7,547㎡, 2차선 도로변, 매3억 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답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답 13,530㎡, 면 소재지, 매3억
- ▶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30억
-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대봉김나무 과수원, 고소득 가능, 매4억
- ▶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전 6,600㎡ 4차선 도로변, 계획 관리지역, 매2억 9천만
-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투자유망, 매17억
- ▶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답 7,610㎡ 2차선 국도변, 투자유망, 매1억5천만원
-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 3,871㎡ 주택, 창고적합 도로양호, 매9천5백만원
- ▶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 과수원 24,884㎡ 매4억8천만원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 010-9510-1150, 061) 333-1150

1%대 초저금리시대
수익형부동산에
몽칫돈이 몰린다!

시세차익 대신
임대수익 노려

7억원을 투자하고
매월 400만원씩을
꼬박꼬박 받는다!

광주첨단지구
유동인구 많은
CGV영화관 옆
3층전물

권민생활시설
상가 17억

010-2804-0632

법원경매

서구 풍암동 사거리코너 2층
스크린골프연습장건물 414㎡
감정가 8억7천
최저가 4억9천

동구 동명동 대지1,394㎡
주거환경정비구역 건물440㎡
상업지역 25M도로접
최저가 12억5천

부동산 재테크 전문

나주시 남평읍 농협부근 1층
대지248㎡ 건물130㎡
감정가 7천40만원
최저가5천만원

북구 생용동 대지 1,853㎡
감정가 3억1천 최저가 2억2천
도로접 전원주택 적합

부동산개발 및 경,공매전문

다와옥션 김용희부장
011-640-1618

NAVER *전국최대* *농촌정보*

단비플라워

축하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